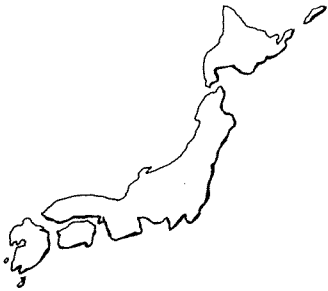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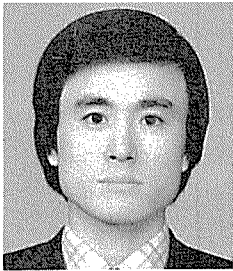


# “출생의 순간부터 보장되는 일본인의 건강”



— 일본 예방의학사업연수를 마치고 —



김 용 망

8월7일 오전 10시30분. 처음하는 해외나들이라는 생각과 선진 일본에 대한 부푼 꿈을 안고 KAL002기에 탑승했다. 고도 8천 피트 상공에서 시속 1500km로 달리고 있는 기내에서 아래를 보니 하얀 구름이 발아래 밟히는 기분이 들어 마치 신선이 된 듯 했다.

그렇게 얼마쯤을 갔을까. 창가로 아스라히 그 유명한 후지산과, 해안을 따라 잘 정리된 일본 땅이 내려다 보였다. 서울을 떠난지 2시간 여분 후 비행기는 나리따(成田) 공항에 착륙했다. 소정의 입국 절차를 마치고 출구를 통해 나오자 예방의학사업 중앙회의 사무국장 구니 와다루(國井渉)씨와 안토(安泰豊徳)사업과장이 이국땅을 밟은 낯선 우리들을 반갑게 맞아주었다.

시내로 들어서자, 잘 설치된 도로 옆의 방음벽이 매우 인상적이었다. 차가 고가도로로 진입하자, 도로사정이 그리 넓은 편이 아니어서인지 차가 밀리기 시작했다. 그러나 우리나라에서 흔히 볼 수 있는 끼어들기나 앞지르기를 하는 차는 단 한대도 볼 수 없었고 경적 소리를 내는 차도 없었다. 모든 사람들이 여유가 있어 보였다.

우리 협회 한일 예방의학사업 교류의 일환으로 필자를 포함하여 본부 및 각 시도지부에서 선발된 17명의 연수생은 일본국 예방의학사업중앙회 및 동경 예방의학협회 견학을 위하여 지난 8월7일부터 10일까지 3박4일간의 일정으로 일본을 방문했다.

동경 시대는 그리 높지 않은 건물들이 숲을 이루고 있었고, 입체고가도로가 많아 조금은 복잡한 느낌이 들었다. 익히 들어 알고 있던 사실이지만 과연 일본이 처한 협소한 지리적 여건과 자연 환경을 극복하기 위해 인위적으로 노력한 흔적이 역력했고, 오늘날과 같은 경제대국으로 끌어올린 일본인의 국민성을 새삼 느낄수 있었다.

교통 적체 덕분(?)에 공항을 출발한 지 3시간 30분이 지난 후에야 이제가와에 있는 그랜드 비루호텔에 도착했다. 호텔방의 침대 옆에는 일본 고유 의상인 기모노가 놓여 있었다. 그것을 보자 우리 민족이 수난 당했던 일제 36년의 쓰라림이 한꺼번에 몰려왔다. 또 며칠 후로 다가온 8월15일 조국의 광복절을 생각하면서 순국선열들의 고귀하신 뜻을 가슴에 새기면서, 우리 민족의 자국심에 도취되기도 했다.

이튿날인 8월8일 오전 9시, 우리 일행은 공식 일정에 의하여 예방의학사업 중앙회와 동경 예방의학협회를 방문하기 위해 보건회관을 찾았다. 보건회관은 숙소에서 2분 정도의 거리에 있었는데, 연건평 약 2천평 규모의 4층 건물로, 예방의학사업중앙회, 동경예방의학협회, 건강교육추진본부 등이 상주하고 있었다.

우리는 4층 회의실에서 9시 30분부터 12시까지 한일양국의 건강관리사업 및 예방의학에 관한 간담회를 가졌다. 구니이 와다루(國井渉)씨는 유인물을 통해 예방의학사업중앙회의 업무 현황을 비교적 자세히 설명해 주었고, 우리 협회의 사업에 관해서는 김봉수 총무과장이 설명했다. 이 자리에서 우리나라에 비해 예방의학사업에 빠른 발



일본 예방의학사업중앙회는 일본 국민의 평생 건강관리에 주력하고 있는데, 특히 학교 보건사업에 큰 비중을 두고 있었다.



전을 보여준 일본 예방의학사업중앙회에 대한 우리의 질문과, 이에 대한 그들의 답변은 매우 진지하게 이루어졌다.

일본 예방의학사업중앙회는 재단법인으로서, 민법에 의한 공익법인이다. 이 협회는 설립 과정부터 수입을 수반한 사업을 활발히 전개하여 사회 전체의 이익에 공헌하는 한편 질병 예방 운동 확대를 그 목적으로 하고 있다.

일본 예방 의학 사업중앙회는 전국에 33개의 지부를 두고 있는데, 지부의 검사·검진 사업은 모자보건(선천성대사이상, 갑상선기능 저하증, 신경아세포종), 학교보건(신장병, 심장병, 당뇨병, 빈혈, 결핵, 소아성인병, 검진), 성인보건(위암, 자궁암, 유암, 일반 정기검진, 직업병, 순환기 이상, 노인검진, 인간도크, 신장병, 당뇨병, 빈혈, 결핵, 기타), 환경위생(직업환경측정, 수질, 간진수, 식품, 기타), 제 검사(기생충, 세균, 혈청, 간기능, 기타)등을 비롯해 보건상담, 건강교육, 기타검진, 피폭자관리, 폐기능 검사, 스포츠 검진 등을 구분·실시하고 있고, 그 중에서도 특히 학교 보건 사업이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음을 그들은 강조했다.

이날 오후에는 동경 예방의학협회의 활

동에 관하여 동 지부 상임이사인 야마우찌(山内邦昭)씨로부터 설명을 듣고 시설을 견학했다.

동경예방의학협회는 '49년 기생충 검사를 시작으로, '59년 장내 세균검사, 잠혈 반응 검사, '61년위 x-선 검사를 실시했고, 65년에 산업 보건 정기건강진단, 순환기 검사, 66년 식품세균검사, 학생빈혈검사, '68년 자궁암 및 학생 심장병 검진, '71년 호흡 기능, '73년 산업 보건 특수 건강진단, '75



년 선청성대사이상검사, '76년 수질검사, '77년 작업환경검사, '78년 척추관 검사, '84년 신경아세포종 검사등을 확대 실시하면서 현재까지 40여년의 전통과 더불어 예방사업의 경험과 기술을 축적해 왔다. 그 결과 이제는 각 분야별 검사가 체계적이고 과학적으로 시스템화 되어 있었다.

특히 기억에 남는 일은 시설 견학을 하는 동안, 동경지부 직원들의 차분하고 부지런하게 자신의 일에 몰두하고 있는 모습과 각 사무실 책임자들의 성실한 설명 태도와 자긍심이었다. 일례로 이런 일이 있었다. x-

선 검진 차량의 페인트가 벗겨진 것을 그 차량의 기사가 수선을 하고 있었다. 회사의 재산을 곧 자신의 것으로 생각하는 그들의 애사심과 근면성에 우리는 탄복하지 않을 수 없었다.

시설 견학을 마친 후 우리는 동경지부와 일본 예방의학사업 중앙회 임원들과 함께 그들이 베풀어준 만찬을 즐기면서, 서로의 언어는 통하지 않았지만 시종일관 화기에 애한 분위기를 유지했었는데 모두가 국민의 건강 증진에 기여하고 있는 사람들이라는 공감 때문이었는지 상호의 친목이 한층 강화될 수 있었다.

연수 3일째인 9일, 공식 일정 외에 우리 일행은 일본의 생활 풍습이나 문화를 돌아보기 위해 관광을 하기도 했다.

일본은 해양성 기후로 인해 습도가 아주 높은 지역인데 여름이라는 이유외에도 유난히 덥다고 생각되었다. 산야에는 관상수가 울창하게 자라고 있어, 매우 깨끗하고 기상이 있어 보였다.

우리는 우선 동경도 부근 이두반도(伊豆半島)에 있는 아다미(熱海)해수욕장에 들러 태평양을 배경으로 사진을 찍고, 시간에 쫓겨 물 속에 들어가보지는 못했지만 잠시나마 바닷가의 낭만을 만끽할 수 있었다.

옛 화산 지역으로, 옛날 동경에 들어가는 관문역할을 했던 하꼬네(箱根)을 방문했을 때는, 당시의 파수꾼(사무라이)모형이 목각으로 만들어져 있는 것을 볼 수 있어 일본 전통 문화의 냄새를 맡을 수 있었다.

일행은 일본의 그 유명한 노천 온천에 들러 보기도 했다. 뜨거운 유탕 온천물이 계곡을 따라 흐르고 있었고, 사람들이 그곳에



서 온천을 즐기고 있었다. 우리 일행도 잠시 며칠간의 쌓인 피로를 그곳에서 풀었다.

동경 시내에 있는 백화점 다래경(多來慶)에 들렀을 때는 마침 세일기간이었던지 표시가격보다 10-20% 정도 싸게 파는 모습을 볼 수 있었고, 특히 전자제품을 보면서 그 세련된 디자인이나 색상에서 그들의 섬세함을 보는 것 같았다.

일본에서의 마지막 저녁 식사를 하면서 우리는 그리운 김치를 슈퍼에서 구입해다 먹을 수 있었고, 식사 중에 일본 맥주, 정종 등 몇가지 술이 곁들여졌으나, 우리가 가져간 우리나라의 진로소주 맛이 역시 일품임을 새삼 느끼며 한국인으로서의 자부심을 떠올리기도 했다.

이번 연수는 선진국의 체계적이고도 과학적인 건강관리 시스템을 눈으로 보고 배울 수 있었다는 점에서 그 의의가 매우 깊었다.

일본 예방의학사업중앙회는 검진기능의 우수함, 검사항목의 다양성 외에, 질병을 치료할 수 있는 진료 시설을 함께 갖추고 있어 예방의학적 차원의 건강관리 시스템이 제

대로 자리를 잡고 있다는 생각이 들었다. 또한 위장과, 순환기과, 부인과, 소아과, 방사선과 등을 분야별로 운영, 의사가 진료와 처방을 하고 그에 따라 약제과에서 약을 조제·지급하는 1,2차 진료 기능을 갖고 있어 검진자들의 시간적·경제적 부담을 줄여주고 있음도 알 수 있었다.

뿐만아니라 의료 및 사회보장제도가 잘 발달되어 있어서 모자보건, 학교보건 등을 국가 예산 및 지방예산 사업으로 실시토록 되어 있었고, 성인보건 중 노인 건강 역시 법적으로 40세 이상의 국민이면 모두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보장되어 있었다.

그러나 그들이 무엇보다도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역시 국민 계몽사업임을 알 수 있었다. 실제로 예방의학 차원의 국민 계몽 사업을 전담하는 기관이 보건회관 내에 있는데 그것이 바로 건강교육추진 본부다. 여기서는 여러가지 우수한 건강교육 교재를 비롯해 건강 수첩 등을 제작·판매하고 있는데 국민들의 호응도가 상당히 높다고 한다.

이처럼 체계적이고도 상호 협조적인 일본의 검진·진료 시스템을 돌아보면서 아직까지 해결하고 발전시켜나갈 일들이 많은 우리의 입장로서는 부러운 생각이 들기도 했다. 그러나 현재 우리 협회가 갖는 취약점을 보완하고 열심히 일을 하다보면 멀지 않은 장래에 우리나라 민간부분 보건 예방사업의 선두주자 로써 국가 보건 의료 부분의 발전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는 확신과 자신감을 다지는 계기가 되기도 했다.

〈필자=건협 기획부 기획계장〉